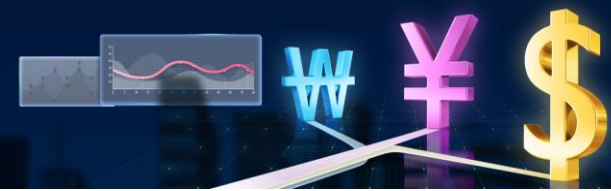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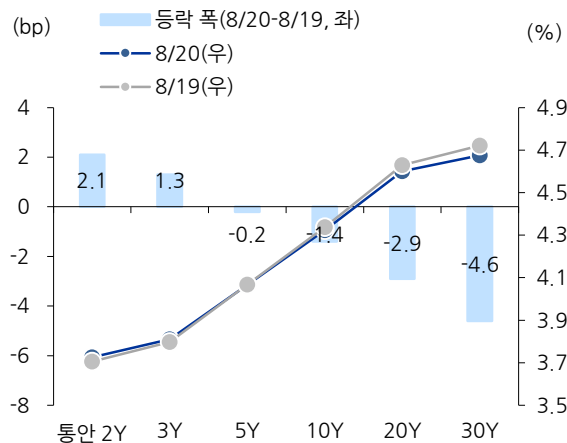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8/20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11%	1.3	2.0	85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23%	-1.4	2.9	93.8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51.2	53.9	50.3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22	-8.0	-9.0	-222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57	13.0	-21.0	-735.0
	미국채 2년물	4.190%	2.6	4.6	71.8
	미국채 10년물	4.707%	6.0	6.3	53.9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51.7	48.3	50.0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271%	-0.5	12.5	41.6
	호주국채 10년물	4.976%	-5.2	1.3	22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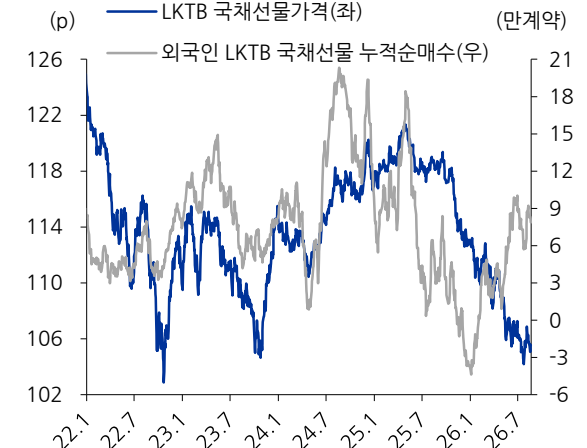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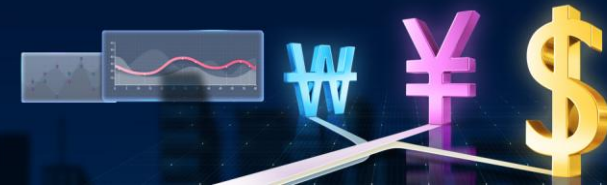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장단기 방향성 엇갈리며 커브 플랫닝 마감.
- 간밤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한도를 늘린 것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금리도 미국 금리 흐름을 따라 장기물 위주로 하락세 지속.
- 다만 8월 금통위를 앞두고 연속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있어 단기금리는 상승.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1,390원대로 떨어지자 관련해 인상 우려가 일부 축소됨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.
- 전일 바이백 관련 강세를 되돌리고 약세 출발. 오전 장 중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백 규모가 최소 회당 40억달러라는 점을 상기시켰고, 그 외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언급. 이번주말~다음주 초 재정 건전화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예고해 국채 금리 상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음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,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호조 등 기타 재료와 국채 발행 우려 등 혼재되며 금리 장기물 위주로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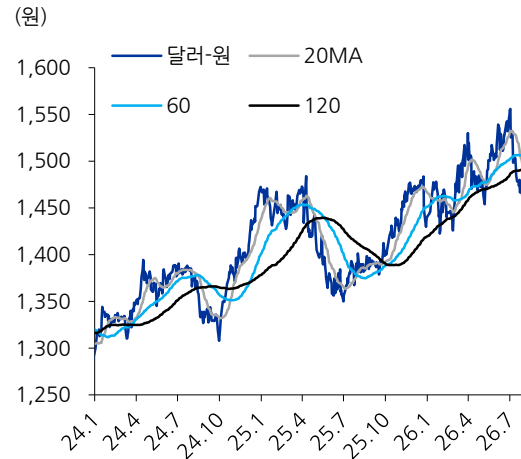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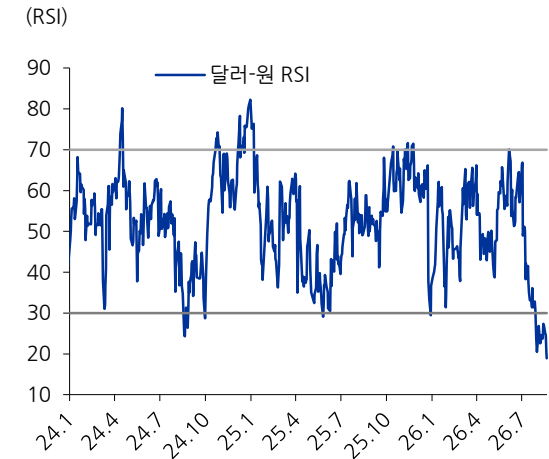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8/20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92.60	-0.4%	-1.9%	-3.2%
	달러지수	98.87	0.1%	-1.1%	0.6%
	달러/유로	1.17	0.0%	1.3%	-0.6%
	위안/달러(역외)	6.73	-0.1%	-0.3%	-3.7%
	엔/달러	159.06	0.6%	-0.3%	1.5%
	달러/파운드	1.36	0.2%	1.1%	1.2%
	헤알/달러	5.19	0.5%	0.1%	-5.9%
상품	WTI 근월물(\$)	87.83	2.3%	8.1%	53.0%
	금 현물(\$)	4,519.04	-0.1%	3.9%	4.6%
	비트코인(\$)	72,790	6.1%	14.7%	-17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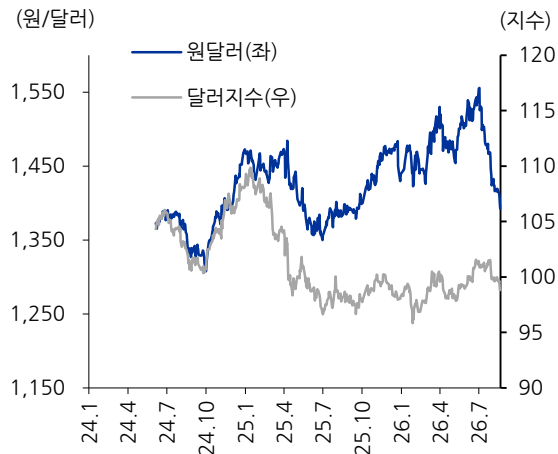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주주환원에 따른 환전 기대와 美 달러 약세에 -5.10원 하락한 1,392.60원 마감(야간 1,396.0원).
- 8/19일 장 마감 이후 SK하이닉스의 40조원 자기주식 취득·소각 발표와 추가 주주환원을 위한 대규모 원화 환전 기대가 높아지며 달러-원 하락을 주도.
- 美 재무부가 장기채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 또한 원화 상승 요인이었음.
- 달러-원은 지난 7월 고점 대비 -160원 가량 하락함. 주주환원 기대와 법인세 중간 납부 수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8월 이후 수출업체 환전 수요가 서서히 감소하며 원화 강세 압력 완화될 전망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중동 갈등 장기화 우려와 전일 美 바이백 발표에 의한 하락 되돌림에 상승(DXY +0.1%).
- 베센트 美 재무장관이 이란에 '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공조된 경제적 고립'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고,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이어짐. 이에 유가 상승하고(WTI +2.3%) 엔화 약세, 달러 강세 진행.
- 미 국채금리는 바이백 확대 발표효과 되돌림에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며 달러 상방 압력으로 작용. 시장은 바이백이 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음.
- 美 금리 상승 자체는 달러 강세 요인이거나, 재정 우려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은 달러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.